

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중보하며  
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.  
콩고민주공화국 이도항, 김소영 선교사입니다.

## 1. 기도하면 기쁨은 두배가 된다.



- 기독교 학교사역을 하면서 긴장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. 그것은 정부졸업고사 시험 발표일입니다. 콩고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,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더 어렵기에 졸업고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은 학생, 교사, 학부모들이 마을을 줄이며 기다립니다.
- 코코 학교에서도 고3학생이 졸업고사에 떨어지면, 1년을 더 다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크고, 이로 인해 각 학교의 졸업고사 합격률이 그 학교의 탁월성을 말해주기까지 합니다. 그래서 학교도 조심스럽게 결과의 주의합니다.
- 2023년 9월 1일, 늦은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. “선교사님, 저희 학교 고3학생 38명, 모두 졸업고사에 합격했습니다.”, 그동안 수고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.
- 그 다음날 아침, 학교에 도착했습니다. 고3학생들이 머리에 베이비 파우더를 뒤집어 쓰고 기쁨가운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. “선교사님! 기도해 주세요.” “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.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도 당신이십니다.”

## 2.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한 자에게 전해지면 눈물이 된다.

- 지난 금요일(9월 15일)에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. 한국에서 한 성도님의 장학헌금으로 3년째, 학업에 탁월한, 그러나 가정형편이 힘든 학생들을 발굴해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저는 눅2:52절의 말씀,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앞에서 지혜가 자라고, 은혜가 자라고, 신체가 자랐다.(불어성경번역) 는 말씀으로 간단히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우리가 자라가려면 말씀을 가까이해 해야한다는 것이었죠.

- 그런데,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이 여학생은 3년전에 아버지의 여의고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힘든 가정형편속에서 공부하였습니다. 힘든 환경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. 그리고 3년째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.



- 말씀을 들을 때 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장학증서를 전해줄 때는 닭똥같은 눈물을 흘려서 얼굴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. 그때, 그 학생의 고된 삶이 느껴졌고..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장학증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.
- 제 마음에는 ‘내가 입양까지는 못해도 공부할 수 있도록, 웃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’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깨달은 것은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눈물이 되고 그리스도 사역은 그 눈물을 닦아 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

### 3. 시작된 변화

- 콩고에서 오랜기간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,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-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가 오랜기간동안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한 사역은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역,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“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입니다.
- 이를 위해, 저희 교회에서 7년동안 매주 모여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고, 공부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가정에서 교육하였습니다. 저희가 매일 소중히 여기는 사역은 묵상과 가정예배입니다.
- 그러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씨를 뿌리는 데, 싹이 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. 그런 오랜 시간 후에,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아직은 너무도 미비하여서 알아차리기 힘들지만,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
- 우선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, 특별히 현지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말씀을 들을 때, 얼마나 은혜가 되는 지 모릅니다.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주제의 일관성도 없고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 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어떻게 저 구절에서 메시지를 찾고 적용할 수 있는지 놀랍기 마저 하였습니다.

- 그리고 얼마전에 한 사역자가 저에게 “목사님이 예전에 선포한 맛다디 20-20-맛다디로 가는 길에 20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-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. 이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. 현지사역자가 저에게 선교적인 도전을 하였습니다.
- 우리는 기도하며 1년동안 목회자 후보생으로 준비한 5명의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선교적 비전 맛다디 20-20는 더욱 비전을 확대하여 맛다디 20-40로(맛다디로 가는 길에 20개의 교회를 세우고 40명의 현지사역자 양성) 이제 준비될 현지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.

#### 4. 기도제목

- 1) 코코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졸업생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콩고를 향한 변화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- 2) 위에서 나는 고3이 되는 장학생 양계비 학생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. 주님의 긍휼이 그 가정에 임하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를, 그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
- 3) 새롭게 신학교에 입학하는 5명의 목회 후보생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, 교회가 세워지고, 복음의 빛이 이 땅에 가득 비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- 4) 선교를 이끄는 힘은 주님의 은혜이고, 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을 품을 수 있도록, 선교사인 저와 아내(김소영선교사)에게 더 강한 어깨를 주시도록,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은혜의식으로 사역에 충실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- 5) 첫째 산지를 이어서, 둘째 예지가 케냐 선교사 자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. 학교에 충분히 잘 적응하고, 학업과 관계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2023년 9월 19일

아프리카의 심장,

콩고민주공화국

이도항, 김소영(산지, 예지, 루지) 선교사 올림.

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기 원하는 분을 위한 메일주소

: [hangari74@gmail.com](mailto:hangari74@gmail.com)